

거룩한 문 성문교회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문안드립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3월이 지나고 4월 고난주간을 지나며 을 맞이하는 즈음, 영상으로 성도님들을 대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서 이렇게 글을 써서 보내드립니다.

비록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육신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는 함께 있기를 바라며 성도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뵙지 못하는 동안 질병, 수술, 경제적인 어려움 등 여러 기도 제목들로 인해 아파하고 기도가 필요한 성도님들과 전화로 소통하면서도 직접 만나 뵙고 기도해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너무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해결되어야 할 인생의 짐들, 응답이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살려주시며 응답하시길 기도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일은 너무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질병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한 분이라도 코로나 19로 인해 힘들지 않도록 예방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두 주간 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당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공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일예배가 회복되어도 당분간 지속적인 안전과 보호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주일학교 믿음의 다음세대인 우리 교회 자녀들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시기까지는 영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잘 준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때 고려해야 할 것은 주로 11시 예배에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밀집된 형태의 모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이며, 결국 예배의 시간적, 공간적 배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오전 9시, 11시, 오후 1시 30분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를 **돌아오는 부활주일부터 오전 8시, 10시, 오후 12시, 2시로 시간 변경을 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미리 준비된 심령으로 예배 시간을 지켜주신다면, 함께 모여 공예배가 회복될 때는 이전의 11시에 집중되었던 예배가 10시, 12시 예배로 분산되어 공간이나 시간, 주차 등의 문제가 해소가 되고, 또한 주일학교도 10시, 12시의 1부, 2부로 나뉘지게 되어 우리 자녀들이 밀집되지 않은 쾌적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 시간의 변경에 성도님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동참해주시고, 성도님들과 자녀들의 안전과 더불어 예배의 은혜가 더욱 통성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부활주일에는 너무도 보고 싶은 성도님들과 자녀들을 만나길 원합니다. 부활주일에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신 후 가족들과 함께 차를 타고 교회로 오셔서 교회 마당을 드라이브 -쓰루로 지나가시면 저와 장로님들, 부교역자들이 마당에서 부활절 축하 달걀 선물을 드리고 얼굴을 뵈려고 합니다. 차타고 지나가시면서 그리운 얼굴도 뵙고 부활절 축복이 전달되며 교회 사랑이 더해지는 은혜의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 **주께 뵈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 하리이다(시편 5:11).**” 주님께서 어떠한 위험과 두려움에서도 보호하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으며 이 약속의 말씀을 성도님들께 드립니다. 하루 속히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 함께 얼굴을 뵙고 함께 기쁨으로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예배의 날을 허락하시길 기도합니다.

십자가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후 2020년 4월 고난주간을 지나며 부활주일을 소망함으로
주 안에서 승리의 소망을 담아 담임목사 고동훈 드림